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2021. 06.

대 회 집 행 위 원 회

【 문 제 】

- 주식회사 오송가구(원고1), 오송가구의 회장 진오송(원고2)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이하 “공공환경노조”라고 한다) 서울지부 육송지회의 간부들인 가연심(피고1), 나태승(피고2), 다영섭(피고3)과 공공환경노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인 라조직(피고4)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여러분은 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들 또는 피고들을 대리하게 될 변호사다.

-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사실관계는 3-5쪽 [사실관계]와 같고, 이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들 또는 피고들은 6쪽 이하의 첨부자료를 가지고 법무법인 희망 소속 변호사인 여러분을 찾아와 사건 대리를 의뢰하였다.

- 여러분은 다음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원고 또는 피고 중 일방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하였음을 전제로 할 것
 - 2. 전 항의 선택에 따라 원고의 소장 또는 피고의 답변서를 각각 작성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에는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원인, 항변, 법률상 주장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요건과 근거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는 대법원 규칙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참조하여 15장 이내로 작성하되, 대회규정“11. 서면 작성 방법”을 준수할 것
 - 소장 또는 답변서의 당사자표시는 이름만을 기재할 것
 - 주어진 [사실관계] 외 가정적 사실관계를 상상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 공고에 제시된 문제에 지시된 사항에 따라 소장, 답변서 등 수행 과제의 원고와 피고의 각 서면을 모두 제출할 것
- 제출하는 소장 또는 답변서의 변호사 이름은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송인수”으로 기재하되, 그 성명 옆에 괄호로 참가팀의 참가번호를 기재하고, 서면 자체에는 참가팀의 소속 대학원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는 “2021가합1051 손해배상(기)”, 서면 작성일자는 “2021. 6. 30.”로 할 것
-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대회연도-경연단계-지위-참가번호’순으로 붙일 것(예: 2021-서-원고-7001)
- 제출기한을 준수할 것(2021. 7. 9. 금요일 18:00)

【 사실관계 】

- 가구 및 도자기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오송가구(이하 “오송가구”라고 한다)는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사옥(이하 “이 사건 사옥”이라고 한다)의 1층에 500평 규모의 앤티크 가구 전시관(이하 “이 사건 전시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앤티크 가구와 도자기를 판매하고 있다.
- 이 사건 사옥은 5층 건물로 1층에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4층과 5층은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사건 전시관의 매출은 계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월평균 금10억원 규모이고, 영업이익은 매출의 약 30% 수준이다. 한편, 이 사건 전시관에는 오송가구 소속 판매사원 2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인건비는 월 5,000만원이고, 이 사건 사옥 인근의 유사한 건물의 1층의 임대료는 1평당 월 1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 오송가구는 2019년 3월 31일 ‘육송서비스’라는 용역업체와 이 사건 사옥의 미화 및 경비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9. 4. 1.부터 2021. 3. 31.까지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육송서비스는 5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10개의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형 공장에서 미화, 시설관리 및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법상 합자회사이다.
- 육송서비스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옥의 미화,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9. 4. 1.자로 가연심, 나태승, 다영섭 등 30명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였다.
- 가연심 등은 이 사건 사옥 내 미화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옥 내 휴게공간의 미제공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고 2020년 10월 경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직국장인 라조직과 만나 노

동조합 설립에 관한 상담을 하고, 2021. 2. 15.에 가연심, 나태승, 다영섭 등 5명의 근로자가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다. 이후 가연심 등의 권유로 이 사건 사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30명을 포함하여 육송서비스에 소속된 근로자 300여 명이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 2021. 3. 2.자로 총회를 개최하여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서울 지부 육송지회를 설립하였다.

- 위 총회에서 가연심은 지회장으로, 나태승은 부지회장으로, 다영섭은 운영국장으로서 선출되었는바, 이중 가연심과 다영섭은 이 사건 사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나태승은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뉴테크노 아파트형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 2021. 3. 3.자 민주노동신문 인터넷판에 이 사건 지회의 조직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바, 지회장인 가연심의 인터뷰가 기사에 포함되어 있다.
-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는 오송가구가 기간만료일 2주간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업무위탁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오송가구는 2021. 2월 중순부터 육송서비스와 업무위탁계약의 갱신 조건에 관한 교섭을 하여 왔으나, 2021. 3. 10.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육송서비스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1. 3. 20. 이 사건 사옥 인근의 크라운 호텔의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크라운 시설관리와 이 사건 사옥의 미화 및 경비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21. 4. 1.부터 2022. 3. 31.까지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육송서비스는 이 사건 사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배치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2021. 3. 31. 이후에는 이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육송지회는 2021. 3. 21. 오송가구에 이 사건 사옥에서 근무하는 육송서비스 소속 미화원 등 30명의 조합원의 고용관계를 크라운 시설관리에 승계해 줄 것을 오송기업에 요구하였으나, 오송기업은 자신은 이들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육송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에 육송지회는 이러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2021. 3. 27. 총회를 개최하였고, 300여 명의 지회 조합원 중 200여 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한 조합원의 무기명 투표 결

과 참석한 조합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2021. 4. 1.부터 무기한으로 이 사건 사옥 1층 로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여 주야로 농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농성의 주된 요구사항은 “오송가구는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 “육송서비스는 고용안정 책임져라”, “오송가구는 고용승계 보장하라”, “휴게장소 마련하라” 등이었다.

- 이러한 총회 결의에 따라 육송지회 소속 조합원 30여 명이 2021. 4. 1.부터 이 사건 사옥 1층 로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고 철야 농성을 하였다. 이에 오송가구는 육송지회 측에 지체없이 농성을 해제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육송지회 소속 조합원 30여 명은 점거농성을 계속하였다.
- 한편, 이러한 점거농성 과정에서 점거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수차례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오송가구 진오송 회장은 반성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 이러한 점거농성 기간 동안 점거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육송지회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오송가구 보광동 사옥 부근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기적으로 점거농성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 이러한 점거농성이 계속되자 오송가구는 크라운 시설관리와 합의하여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2021. 5. 31.자로 육송서비스와 종전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체결 사실이 알려지자 육송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농성을 풀고 귀가하였다.
- 이러한 오송가구는 육송지회의 2개월에 이르는 로비 점거 농성 기간에도 이 사건 전시관의 운영은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농성이 비교적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전시관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2020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농성에 참가한 30여명의 조합원 중 경기도 안양의 아파트형 공장에서 근무하는 나태승(피고2)과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서울지부 조직국장인 라조직(피고4)만이 이 사건 사옥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머지 28명은 모두 육송서비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공공환경노조 육송서비스 지회 설립 '눈길'

기자명편집부 입력 2021.03.03. 08:10



서울과 경기도에서 미화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육송서비스(합) 소속 3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2021. 3. 2. 총회를 개최하여 전국공공환경산업노조 경인지부 육송서비스 지회를 설립하였다. 육송서비스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10개 건물에서 미화, 시설관리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육송서비스 지회는 서울 용산구 소재 오송가구 본사 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가연심(사진, 여, 43세)을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가씨는 2020년 8월 휴게장소의 제공 등 사무실 건물에서 근무하는 미화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이후 가씨는 전국공공환경산업노조 서울지부 라조직 조직국장의 조력을 받아 육송서비스 소속 미화 및 경비 노동자들의 노조조직을 추진하였는데, 짧은 기간 동안 10여개 현장에서 근무하는 500여 명의 근로자 중 30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하였고, 2021. 3. 2. 총회를 열어 지회를 설립하였다. 지부장으로 선출된 가씨는 “민간 부문의 미화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건물에 휴게공간이 없어 간식도 쥐 죽은 듯이 밖에서 먹었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공환경노조에 가입하였고, 여러 동지들의 도움으로 지회까지 조직하게 되었다. 동지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지부장으로 선출된 만큼 미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민주노동뉴스(<http://www.democratic-labour.com>)

오 송 가 구

수신 : 육송서비스

일시 : 2021. 3. 10.

제목 : 업무위탁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담당 : 법무팀 최율사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사가 2019. 3. 31. 귀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할 경우 계약 기간은 2019. 4. 1. 부터 2021. 3. 31. 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동 계약서 제2조). 나아가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만료일 2주 전까지 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동 계약서 부칙 제1조)
3. 본사는 이번 공문을 통해 귀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본 공문을 통해 귀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2021. 3. 31.부로 만료됨을 밝힙니다.
4. 본사로서는 귀사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수 차례 검토해보았습니다. 특히 귀사가 지난 2년 가량 보여준 높은 서비스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귀사와의 계약 갱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귀사께서는 HR 이슈로 여러 차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었는 바, 귀사께서 처한 불안정한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귀사와는 계속 사업을 함께하기에는 다소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송구스러운 입장을 밝히게 되었습니다만, 귀사의 양해를 구합니다. 끝.

육 송 서 비 스

수신 :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참조 : 서울지부 육송지회

일시 : 2021. 3. 12.

제목 : 업무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

담당 : 법무팀 변호사 김하경

=====

1. 귀 노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노조 서울지부 육송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본사가 오송가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보광동 사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오송가구는 2021. 3. 10. 자 공문을 통해 본사와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에 관해 갱신 거절 통지를 보냈습니다. 본사로서는 오송가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정한 계약기간에 따라, 더 이상 보광동 사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4. 현재 본사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본사는 보광동 사옥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사는 오송가구 이외에 세희산업 공장, 두섭아파트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타 사업장에 보광동 사옥에 근무한 직원들을 배치할 T/O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이에 본사로서는 귀 노조 육송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보광동 사옥 근로자들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추후 개별 직원들

[증거 3. 2021.3.12. 육송서비스 이사건 지회 공문]

에게 별도의 서면을 통해 통보할 예정이지만, 귀 노조 육송지회에서도 상기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시고, 양해해주실 것을 구합니다. 끝.

오 송 가 구

수신 : 육송서비스

일시 : 2021. 3. 20.

제목 : 인수인계 요청 통보서

담당 : 법무팀 최을사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사는 금일부로 주식회사 크라운 시설관리와 새로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2021. 4. 1. 이후 부터는 주식회사 크라운 시설관리가 본사 보광동 사옥의 시설관리 사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3. 본사는 2021. 3. 20. 공문을 통해 귀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은 2021. 3. 31.부로 만료됩니다. 위 업무위탁계약서 제17조에는 귀사의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2021. 4. 1. 부로 업무를 시작할 주식회사 크라운 시설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전 국 공 공 환 경 산 업 노 동 조 합

수신 : 오송가구

일시 : 2021. 3. 21.

제목 : 단체교섭 요구 통지

담당 : 육송지회 지회장 가연심, 조직국장 사희원

=====

1. 직장사수! 해고철회! 고용안정! 승리투쟁!
2.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우선 귀 사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육송지회 소속 조합원 30명은 현재 집단 해고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귀 사의 육성서비스에 대한 업무위탁계약 갱신거절 통지로 인해 육상서비스는 우리 조합원 30명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전원 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 특히 귀 사의 계약갱신거절 통지의 이면에는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의사가 엿보입니다. 귀 사는 육송서비스와 원만히 계약 갱신을 논의하던 중, 우리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되자 돌연 태도를 변경하여 갱신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지금이라도 갱신 거절 의사를 철회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 만약 타 회사와 신규 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갱신 거절 의사의 철회가 어렵다면 보광동 사옥에서 사업을 체결하는 크라운 시설관리와 고용승계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보장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조가 결성되었다는 이유로 30명의 근로자에 대해 집단 해고를 단행한 귀사의 행동에는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형사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6. 이처럼 본 노동조합은 귀 사에 대해 고용승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특히 고용승계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나. 대표자 : 위원장 마세희 다.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시 노동구 해방길 11-1111 라. 조합원의 수 : 육송지회 소속 오송가구 근무자 총 30명.
--

7. 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불응할 경우 본 노동조합은 귀사에 대해 노동조합법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이전에 직장사수, 해고철회, 고용안정을 위한 우리 노동조합의 끝장 투쟁을 직면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전 국 공 공 환 경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마 세 희

전 국 공 공 환 경 산 업 노 동 조 합

수신 : 육송서비스

일시 : 2021. 3. 21.

제목 : 단체교섭 요구 통지

담당 : 육송지회 지회장 가연심, 조직국장 사희원

=====

1. 직장사수! 해고철회! 고용안정! 승리투쟁!
2.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귀 사는 2021. 3. 20. 자 공문을 통해 우리 노동조합 육송지회 소속 조합원 동지들 30명에 대해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4. 유감스러운 심정입니다. 귀사에서 2년간 성실히 일한 30명 조합원들은 귀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귀사에 우리 노동조합 육송지회가 설립된 시점은 2021. 2. 15. 인 바, 불과 한 달만에 육송지회를 조직을 주도한 핵심 구성원 30명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독한 탄압 의사가 보입니다.
5. 귀사는 오송가구가 업무위탁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통보를 보냈기에 보광동 사옥에 근무하던 육송지회 조합원들 30명에 대해 더 이상 고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희산업 공장 및 두섭아파트 사업장에는 상당수 직원들이 정년이 예정되어 추가 T/O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한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보광동 사옥은 가연심 지회장, 사희원 조직국장을 비롯한 우리 노동조합 핵심 간부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증거 6. 2021. 3. 21. 이 사건 지회 - 육송 서비스 공문]

귀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 이면에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근거한 형사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귀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 국 공 공 환 경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마 세 희

[2021. 3. 28. 자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소식지]

오송 자본의 독주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지난 2021. 3. 2. 부로 육송지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보광동 오송 사옥에 근무하는 가연심 지회장을 필두로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렴치한 오송자본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송가구는 육송서비스와 적극적으로 업무위탁계약의 갱신을 논의하였습니다. 육송서비스 관리자들의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오송가구는 우리 노조 육송지회가 설립되기 직전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재계약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오송가구는, 우리 노조 육송지회가 설립되자마자 돌연 갱신거절을 통보했고, 이로 인해 육송지회 보광동 오송사옥 30여명의 동지들은 집단 해고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육송지회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송가구에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송가구는 “육송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교섭 의무가 없다! 경영권을 침해하려는 불손한 시도를 중단하라” 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하며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육송지회장 가연심 동지는 2021년 육송지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바로 이것이 오송자본의 본색이다. 조합원들의 단결 투쟁으로 집단 해고를 막아내야 한다” 발언을 하며, 쟁의행위를 제안했고, 육송지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우리 조합원들 대상으로 쟁의행위 총투표 실시를 결의했습니다. 금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육송지회 총 투표 결과

1. 조합원 수 : 300명
2. 투표 인원 : 250명
3. 찬성 : 245표
4. 무효 : 3표
5. 반대 : 2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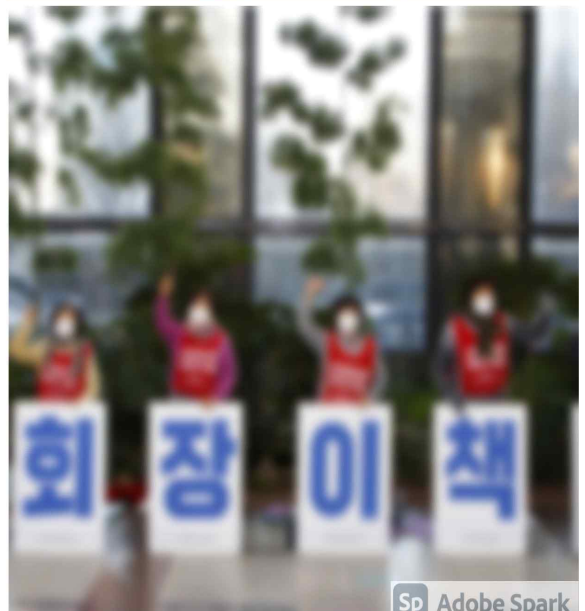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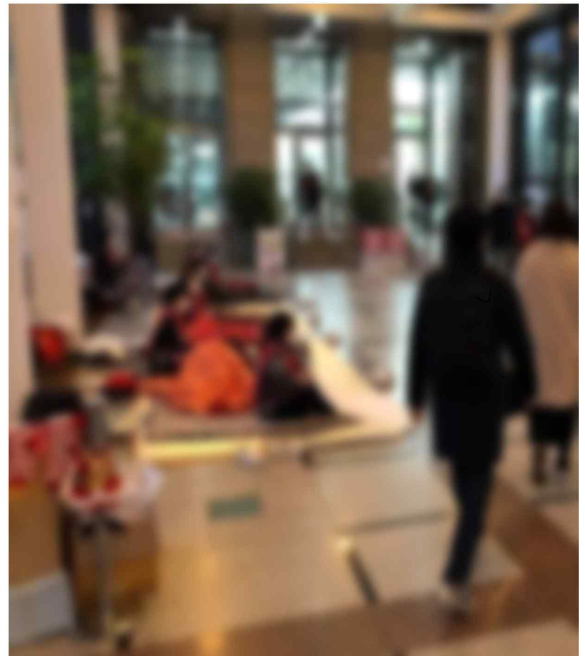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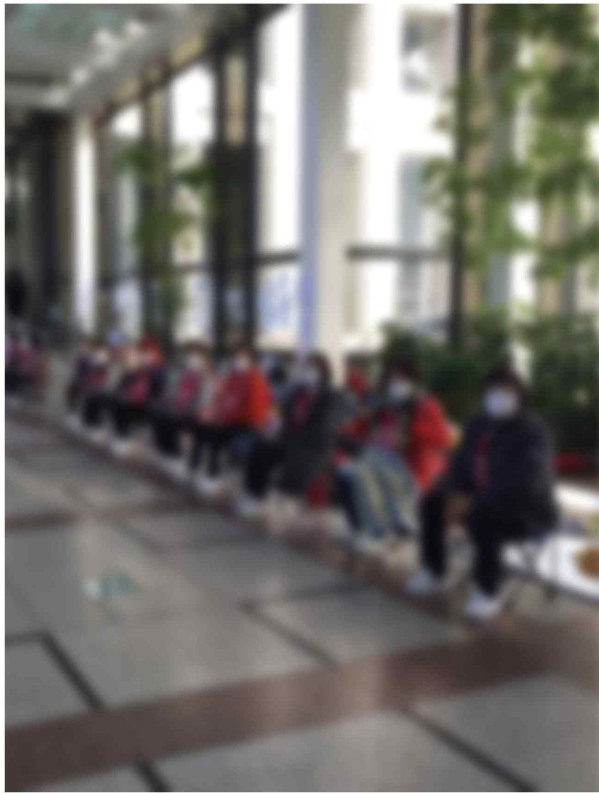
→ 투표 참여 인원 중 98%의 찬성투표로 쟁의행위 가결

이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은 본 소식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쟁의 지침을 밝힙니다. 전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쟁의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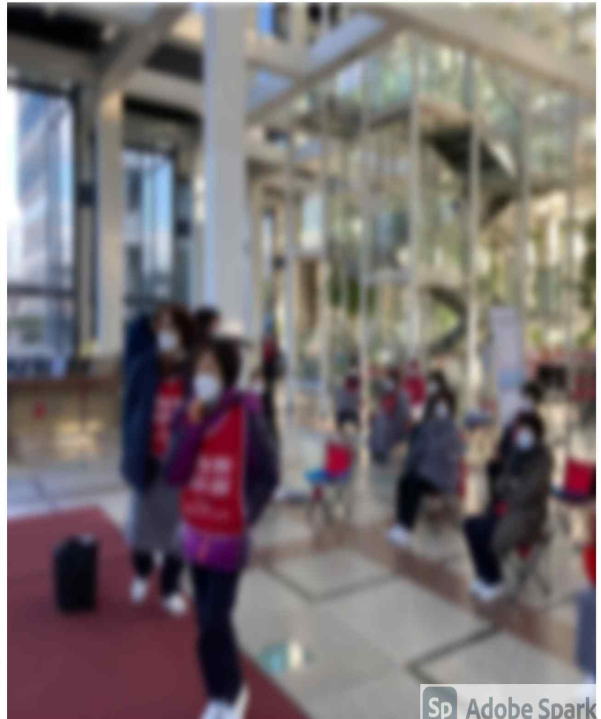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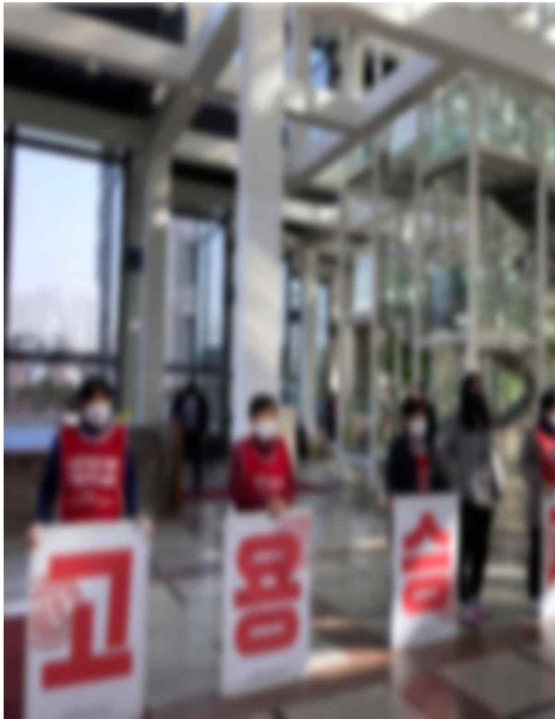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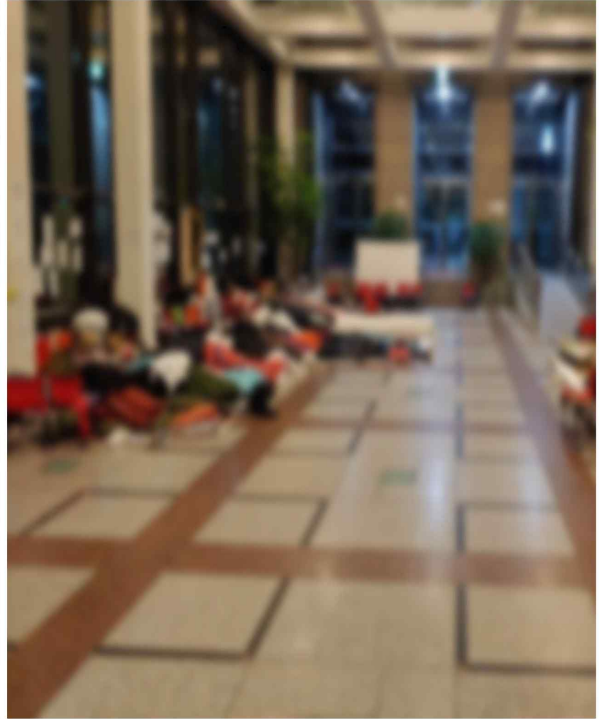
1. 육송지회 조합원들은 2021. 4. 1.부로 쟁의행위를 실시한다.
2. 육송지회 조합원들 중 오송가구 보광동 사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2021. 4. 1.부로 오송가구 보광동 사옥 1층 로비를 점거한다.
3. 오송가구가 해고 철회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점거를 해제하지 않는다.
4. 보광동 사옥 이외의 나머지 사업장(세희산업 공장, 두섭아파트)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점거 기간 중 보광동 사옥 앞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되는 집회(오송자본 규탄! 해고 철회! 직장 사수! 집회)에 모두 참석한다.

전 국 공 공 환 경 산 업 노 동 조 합
위 원 장 마 세 희

<로비 농성 당시 사진>



[증거 8. USB 사진 및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설명 : 이 사건 지회가 로비에서 진행한 약 1시간 분량의 집회 및 문화제 영상임. 퇴근시간 후인 19시부터 진행되었음. 집회에서 투쟁을 서로 독려하고 고용보장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취지의 여러 조합원의 발언이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과 구호가 포함되어 있었음

-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오송가구 진오송 회장은 반성하라”
- “오송가구 진오송 회장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각성하라”

* 이 사건 지회는 위 동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공유해 달라고 하였음

* 위 동영상은 약 400회 정도 공유되었고, 동영상의 일부가 여러 방송과 언론 기사에 보도되거나 인용되었음

오 송 가 구

수신 :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참조 : 서울지부 육송지회

일시 : 2021. 4. 5.

제목 : 불법행위 중단 촉구

담당 : 법무팀 최율사

=====

1. 귀 노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노동조합의 조합원 30~40여명이 2021. 4. 1.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당 회사의 사옥 1층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임직원들이 정중하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퇴거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비에서 숙식을 하고 밤낮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등 막대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사옥에서 근무하는 당 법인의 임직원들과 사옥에 입해 있는 다른 기업들의 임직원들도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당 법인은 귀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귀 노동조합 서울지부 육송지회 사람들은 ‘육송서비스 합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일 뿐, 당 법인과 아무런 법률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성은 당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귀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되는 불법적인 농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5. 당 법인은 귀 노동조합에 대해 다시 한번 조합원들을 사옥에서 즉시 퇴거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간부, 농성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오 송 가 구

수신 :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참조 : 서울지부 육송지회

일시 : 2021. 5. 7.

제목 :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민형사상 조치 알림

담당 : 법무팀 최율사

=====

1. 귀 노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노동조합의 조합원 30~40여명이 2021. 4. 1.부터 현재까지 한달 넘게 당 회사의 사옥 1층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3. 귀 노동조합의 지속된 불법행위로 인해 사옥에 입주해 있는 다른 기업이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전시관에는 고객이 급감하여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 귀 노동조합과 관련자들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4. 여기에 더해 귀 노동조합은 당 법인의 사옥에서 진행한 불법집회를 영상녹화하여 온라인 곳곳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영상녹화물 중에 당 법인과 당 법인의 회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마치 당 법인과 회장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가하는 불법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당 법인은 이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즉시

[증거 10. 2021. 5. 7. 오송가구 발신 공문]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삭제하시는 경우에는 선처를 고려할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사실 확인서

이름 : 바인수

생년월일 : 1964. 1. 1.

주소 : 서울 동작구 미화노동로 3, 45-6

연락처 : 010-567-1234

1. 저는 전국공공환경산업노동조합 서울지부 육송지회 대의원입니다. 오송가구 건물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옥 로비에서 농성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가 농성을 시작한 이유와 농성과정, 분위기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합니다.

2. 저를 포함해서 오송가구 사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모두 2019년 4월 1일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육송서비스에서 오송가구 사옥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문자로 알려와서 지원했더니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예전에도 육송서비스에서 일해 본 사람입니다. 육송서비스가 건물에서 쫓리면 저희도 같이 쫓렸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일자리가 생기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3. 예전에는 쫓리고도 그게 문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 그만두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송가구 같은 건물은 늘 건물관리나 청소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용역업체를 갈아치우면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원래 육송서비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칠송환경이라는 곳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데 칠송환경에서 일한 분들이 연차휴가 문제로 오송가구측과 옥신각신 하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내니까 업체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육성서비스와 계약을 끝낸 이유도 분명히 저희가 노조를 만든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송가구 회장이 원래 노조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4. 오송가구가 육성서비스와 계약을 끝내겠다고 하여 저희는 오송가구에 고용승계를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중에서 용역업체를 바꿀 때 원청이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로운 용역업체를 구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용승계 조건을 건다고 오송가구에 손해가 되더라도 합니까? 그런데 오송가구는 저희 요구에 아예 대꾸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요구해도 대답을 못 들으니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육성서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송가구에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완전히 나몰라라였습니다. 다른데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할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5. 오송가구와 육성서비스 모두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는 농성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송가구 직원들 중에서 저희에게 왜 여기서 농성하냐고, 육성서비스에 가서 농성하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 서러웠습니다. 육성서비스 사무실이 어디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경기도 광주에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 놓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 두세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농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하던 장소가 바로 여긴데 생전 가보지도 않은 경기도 광주 컨테이너에서 가서 농성을 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 시킬 때는 여기서 실컷 시켜 놓고 농성할 때는 나가라니, 사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6. 농성을 할 때에는 지나다니는 다른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통로나 엘리베이터 계단 쪽은 피해서 로비 한켠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가지런하게 의자를 배치해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보기도 무질서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집회는 하루이 딱 두 번 출퇴근 시간에만 진행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회장이나 임원들이 지나가니까 그때 잠깐 진행한 것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용히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했습니다.

7. 로비에서 숙식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다시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집에 가려고 몇 명이 나오자마자 생전 내리지 않던 철문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철문을 내리고 다음날부터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당장 로비에서 숙식을 시작했습니다. 두 세명은 집에 일이 있어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왔습니다. 오송가구에서 고용한 경비용역들이 들여보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비 한쪽 귀퉁이가 잠자리였고 아침 7시 전에 기상하여 자리를 치웠기 때문에 사옥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못 들어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밥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중간에 회사측에서 음식 반입을 중지시켜서 며칠 굶기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중재해서 그나마 식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사옥 1층에 있는 전시관의 매출이 우리 때문에 떨어졌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옥이 넓어서 로비 한쪽에 모여 있는 조합원들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 직원들도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몰래 다가와서 응원한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전시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간질입니다.

만약 정말 농성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다면 농성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오송가구에 실망한 사람들이 오송가구를 회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책임이 아니라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오송가구 책임입니다.

9. 오송가구측은 6주 동안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노조에서 교섭 요구 공문을 무수히 보냈는데 6주 동안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

[증거 11. 사실확인서-농성참여자]

희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언론에 몇 번 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오송가
구축이 대화에 나서면서 저희가 계속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농성이 두달
이나 이어진 것은 오송가구 책임입니다.

10.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며 필요한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
습니다.

사실 확인서

이름 : 마오성

생년월일 : 1980. 1. 1.

주소 : 서울 성북구 안티가구로 1, 23-4

연락처 : 010-123-45678

저는 주식회사 오송가구의 전시판매 매니저로서 서울 용산구 보광동 소재 사옥 1층에 있는 전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사옥 로비에서 있었던 불법 영업방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1. 2021년 4월 1일부터 미화원분들이 포함된 30여명이 사옥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옥 로비는 저희 회사에 오시는 고객들과, 임대 사무실의 임직원, 저희 회사의 임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청결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회사에 오시는 손님들을 안내해야 하는 곳입니다.

2. 그런데 미화원분들은 로비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구호를 제창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때에도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거나 로비를 서성거렸습니다.

3.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바닥에 자리를 깔고 그곳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로비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먹으니 음식 냄새가 로비에 진동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자 굶으라는 말이냐며 화를 내고 항의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몇분은 도시락이 들어오지 않으면 굶겠다며 며칠동안 단식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밤에도 귀가하지 않고 로비에서 노숙했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서 전시관을 오픈할 준비를 합니다. 오전 7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길 앞을 지나다니는데 7시쯤 되어서야 자리를 정리하니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4. 이분들의 농성 때문에 전시관 매출이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로비에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한 수십명이 앉아서 시시때때로 구호를 외쳐대니 사람들이 매장에 접근하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전시관은 고급 앤틱가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고급가구와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수의 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저희가 고객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이 전시관을 찾아 전시된 가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고가의 가구들이어서 방문한 고객이 한번에 가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상담하고 전시된 분위기를 확인한 후에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불법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한번 왔던 고객들이 다시 방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원래 전시관의 재방문율이 70%는 되었는데 2021년 4월 및 5월에는 기분상으로는 재방문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5. 거기다 노조에서 회사에 대한 악성 선전도 많이 해서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몇몇 언론에 회사가 미화원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기사가 실리고, 노조원들이 만든 동영상도 인터넷에 퍼진 영향인 것 같습니다. 동종업계 동료들도 저에게 ‘요즘 오송가구 분위기 안좋다며’, ‘회장이 무책임하고 악질이라며’ 이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6. 이런 상황은 매출에도 바로 반영되었습니다. 전시관 매출은 매월 10억 안팎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많은 계절에는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및 5월에는 매출이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매출이 하락한 것은 제가 일을 시작하고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전시관 직원이 20명쯤 됩니다. 전시관 직원들은 각자 계약 성사건수와 계약 금액에 따라 성과급을 받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면 바로 월급이 적어집니다. 노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이 일하는 근로자에게 이런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증거 12. 사실 확인서-전시관 매니저]

7. 미화원분들이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일은 안타까운 일이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미화원분들은 어디까지나 육송서비스의 근로자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육송서비스와 해결할 문제를 왜 저희 회사에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만 하는 것을 넘어 외부인력을 동원하여 불법농성까지 하여 저희 회사와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 얼마전에 합의가 되어서 농성하시던 분들이 원하대로 계속 일하시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이상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며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증거 13. 1층 전시관 매출 및 영업이익 산정표-4월, 5월]

**1층 전시관
매출 및 영업이익**

	2021년(단위:원)			2020년(단위:원)		
	4월	5월	소계	4월	5월	소계
매출	800,000,000	870,000,000	1,670,000,000	1,000,000,000	1,050,000,000	2,050,000,000
매출원가	470,315,789	511,468,421	981,784,211	587,894,737	617,289,474	1,205,184,211
매출총이익	329,684,211	358,531,579	688,215,789	412,105,263	432,710,526	844,815,789
판관비						
인건비	42,500,000	42,500,000	85,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기타	16,000,000	17,400,000	33,400,000	20,000,000	21,000,000	41,000,000
영업이익	271,184,211	298,631,579	569,815,789	342,105,263	361,710,526	703,815,789